

정론 인민의 그리움 끝이 없어라!

12월이 왔다.
언제나 어느 때나 장군님 그리워 드립던 인민의 마음이 12월의 밤력을 끊지며 물리는 그리움의 바다되어 끊임없이 풀리고 있다.

그립습니다, 장군님!

날과 달이 가고 해가 바뀐수록 더욱 사무치는 간절함으로 산간이 쌓아온 인민의 그리움을 허늘에 달았는가 영광의 광 산자연에 송이총이 눈이 내려 훈눈비가 절로 펼쳐졌다.

오늘도 아침총웃을 일으키고 백두밀림에 거연히 서서 삼천리강장을 활한 미소에 물어보는 우리 장군님,

12월을 앞두고 더 절절해지는 철만

군님의 그리움을 다 암으로 심지연군을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풍상을 삼가 우러르며 우리 원수님 하신 그 말씀 천민의 가슴을 친다.

눈이 내리는 구단,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면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풀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이 때에는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고길민은 용성으로 되어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2월의 눈보라속에 탄생하시어 한정승 인민 위해 생 눈길을 걸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래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편구를 모신 그 말씀 천민의 가슴을 친다.

그때로부터 어언 다섯 차례, 그이 없인 한시도 놓지 않고 피눈물을 흘린 우리가 파연 이렇게 다섯 해를 살아왔다.

김일성광장에서 서면 주석단에서 손을 흔들어주시던 새해 같은 영성이 삼십여 년에 걸친 천 선길로 시민장군님 생각에 적용을 금치 못한다.

쓸어지는 눈밭속에 만경대의 원아들을 꼭 품어주시던 그 아전 총웃자락이 아련하고 아인들이지도 눈물이 글썽해지고 카페지역 인민들이 절절마다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모시며 하염없이 울었다는 이야기, 흰 눈을 보니 장군님 생각이 더해져 풀들이 빛나는 그 새 집들에서 잠 못 이룬다.

세포동원에 절처진 희한한 사회주의 대초원식민이던가. 전기장으로 전변된 청원장을 보이도, 서해로 용암히 뻗어나간 간식지길 걸어도, 세라세로운 문명의 창조물들과 생명수 철철 흘러 넘치는 미루풀을 떠나도 장군님이야기, 그려움의 메이비는 물이 없다.

우리의 5년계획은 매일, 매 순간이 이렇게 그리움 속에 이어져온 정의

세계를 끌어들이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 만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밤을 어나가야 합니다.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밤을 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으며 우리 민민이 밟고 향한 미래가 있습니다.』

장군님 오실 날 손꼽아 기다리며 2011년의 눈내리는 그날까지 따들이지 않았던 알이 불은 감alam, 해가 두번이나 바뀌도록 정히 보한 그 감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대와 인민의 충정의 세계가 얼마나 고결한가 보여보는 그려움의 감, 충정의 감이라고!

인민의 그리움!

정녕은 무엇이란가.

지나간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란가.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인민의 숨길이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움의 강대성이란가.

언제나 나날에 대한 간절한 회憶이란가, 받아안은 정파 사랑에 대한 옷을 추억이

불라는 충정과 애국현신으로 수놓아온 뜻깊은 해

조국청사에 깊이 빛날 푸렷한 자우를 남기며 이색의 년들이 자기의 돌기를 비감하고 있다. 주제 105 (2016)년!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를 숭리자의 대회로, 영광의 대회로 및 내인 풋길은 올해에 함부도 북부미해북구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전후회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루한 우리 인민의 마음마다에는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각 위대한 당시 명도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봄터는 충성파에 국원신을 아낌없이 바쳐온 그나마 긍지와 사랑이 한껏 넘쳐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군로자들은 이 경영열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싶천에 험지하여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제세우는 보람찬 끝장을 지배해 하여야 합니다!』

『군로전체공로자들이』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결정을 높이 달고 걸상이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주체혁명위업, 전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투쟁하며 고려는 오늘 이국의 공민으로서, 사회주의 강국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 이보다 더 영예롭고 긍지스러운 부름이 또 어데 있으랴.

승부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궁지들은 한해를 더듬수록 누군가 보건같건, 알아주건 막건 이어니탕을 위해, 우리의 생생이

며 생활인 사회주의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는 당정

책결사판월의 1번수, 만리마시

대의 제일 기수인 선군시대 풍로

자들의 애국정성이 천만의 심장

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살아온 경례와 직위, 고향과 일터는 서로 달라도 서 멀리 본

세연선마을과 동서해기슭, 조국의 북단한 땅에서 이르기까지 내

조국땅 그 어더에서나 볼수 있

는 선군시대공로자들의 깊은

삶의 깊이끼리에는 언제나 하나

의 지향, 하나의 숨결만이 비껴

나고 있다.

백록 같은 충정과 순결한 광

심, 진할로 모르는 헌신과 열정!

여기에는 빌리나 더듬없는 공장

을 온 나라에 소문난 고려악령

산기지로 일세워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으며 공

장에 날기신 장군님의 유훈은

제사장과 사관들의 간

절사장월 한강에 고려악기공

장 지배인 김정남동무의 고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지난 10여년 새 월

수명의 유훈판월을 두정의

목표로 삼고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에 바로 리정호동무와 같

은 시대의 전현. 선군시대공로자

들이 지난 해혹을 충정의 마

음, 당정책결사판월의 드림없는

의지가 그로 미끼되었는 것이다.

근 4년이라는 오랜 세월

중증의 기적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적을 품은 깊이 밖에 없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힘으로 전

세대를 힘으로 전개해내고

나타내고 있다.

김정남동무만이 아니다.

평도자의 사상파, 의지를

관찰의 좌우명, 투쟁과 위훈의 표

대로 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을 힘들바로 힘들게 힘들게

나타내고 있다.

그는 금계제육인종합운동장

을 찾았을 때마다 그 무엇이든

그의 자족은 위대한

제사장과 두정의 밀뿌리를

찾아온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혁명열풍을

더 세하게 일으켜야 할 것이다!

최근년간 지배인 혁명체육동

부와 청장일군들은 체육의 중

요성을 자각하고 종업원들을

심리에 맞는 방법으로 힘들

을 입히면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하기 위한 사업을 학구적으로

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우선 공장일

군들이 종업원들모두가 체육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

게 조직사업을 짜고든 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광장에서는

체육경기장을 자주 조직하였

는데 참가하는 선수는 고성피에

있었지만 몇 선수들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이

이 한판같이 치열하게 힘들

을 펼쳤던 것이다.

이렇게 생활한 일군들은 거듭되는 토의풀

에 이전부터 경

기에 참가해온

종업원들을

1부류선수로,

그밖의 성원들을

올 2부류선수

는 높이 높아지며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체육

체육경기조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의 여가시간이면

체육관

을 비롯한 여러

사회시설에서

체육경기조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업으로 차운 경위를 높

이었다.

그리하여 대중체육

체육경기조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중체육

무엇을 노린 해군원정타격단조직인가

미국이 유사시 조선반도에 긴급군개화는 미해군무력을 확대하여 하고있다. 미군 구구군수는 미태평양전쟁에서 2017년 말부터 일본 사례보상을 모방으로 하는 해군원정타격단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하였다. 그에 의하면 F-35B스냅스전투기를 탑재한 대형 상륙강습함과 2~200여명의 해병대를 실은 3척의 대형 수송상륙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현재의 상륙준비단에 미싸일 순항함과 해초진공격잠수함, 이지스미사일순항함,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과 군수물자조달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 군수기 업정보교류협조비밀록이라는 것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의 확악고에 불을 달려는 미호전환들의 위험한 한 사람의 미국이 지구상에 핵체단을 풀어오르는 학군이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는 목적이 결코 조선반도에만 혼령전쟁의 걸은 군사연습의 공격적인 행동의 위험성이 있다. 조선반도의 협약한 한 사람의 미국이 지구상에 핵체단을 풀어오르는 학군이라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미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1990년대 3척의 수상함과 해군공격함 수상함과 제 2 해병원정대를 중심으로 한 상륙준비단, CPC-3과 상정찰기 등으로 구성된다. 혼성원정단을 조직하였으나 지휘통제능력으로 이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폭적 상륙함과 대형 상륙강습함의 도입으로 지휘통제능력이 강화되고 F-35B스냅스전투기와 KMV-22 오스카페리기 수직着陸기와 실전배비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 조직이 우리에게 필요로 있는《핵 및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로 한다는 확당한 계획이다.

미국이 조직하여 하고 있는 해군원정타격단은 결코 그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억제력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피뢰들이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벤진 나에 벌려놓고 여기에 각

종 타격수단들과 특수전병력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선제적인 공격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올해에 만 보며라도 KB-5 2H, B-1B, B-2A에 유지하여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험전력기 편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하고 핵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집단까지 조선 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여 우리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면밀한 훈련을 강행하였다. 《광장경령》과 같은 군사연습의 공격적인 기도를 더는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 휴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달려는데 새로운 원정타격단을 조직하려는 것은 미군에 대한 고지로 험전수단들이 7 힘에 새롭게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되었다. 미국은 배우는 향상된 훈련과 함께 핵잠수함인 《살리트》호, 《세이어》호, 《크리스티》호로 7 힘에 새로 배우었다.

미국은 미군의 조선침략전쟁 사가 그 것을 보여준다. 일찍이 우리 인민은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순환방지의 일환》이라는 구설심에 핵항공모함《존 씨. 스트리트》호로 7 힘에 새롭게 배우었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백수십년의 미국의 조선침략전쟁 사가 그 것을 보여준다. 일찍이 우리 인민은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순환방지의 일환》이라는 구설심에 핵항공모함《존 씨. 스트리트》호로 7 힘에 새롭게 배우었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지만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하여 기여자들의 대리운 향락야당을 이루어 보려 하면 그것은 당상이다.

미국은 해군원정타격단을 조직